[기조연설]

기독교윤리와 환경문제

김 영 훈*

차 례

Ⅰ. 서론
Ⅱ. 생명중심의 윤리(life centerd ethics)
Ⅲ. 기독교의 생명이해
Ⅳ. 기독교의 자연관
Ⅴ. 결어

Ⅰ. 서론

창세기 1장1절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의 섭리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 우주만물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의해 존재케 된 것이고, 자연환경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피조물인 인간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자연을 잘 보전하고 다른 피조물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자연환경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 숭실대학교 전 대학원장

우주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스스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동산지기로서 창조의 질서를 보전하고 다른 피조물을 돌보아야할 책임이 있다.

Ⅱ. 생명중심의 윤리(life centerd ethics)

1. 생명중심의 윤리(life centerd ethics)는 종래의 인간중심의 윤리(humancenterd ethics)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중심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생명중심으로 윤리의식이 확대·발전해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생명중심의 윤리(life centerd ethics)는 인간을 단지 생태계공동체속의 한 일원으로 보며, 상호 의존되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지구생태계(global ecosystem), 혹은 생명공동체(biotic community)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은 바로 생명공동체 전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며 상호 의존관계의 원리에 따라 의무를 진다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Leopold Aldo).

지구에 대한 새로운 윤리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의 복지(welfare of nature)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즉 생명공동체로서의 생태계가 갖는 다양성(diversity), 안전성(stability), 그리고 생명의 온전성(integrity of biotic community)에도 인간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중심의 윤리는 환경윤리(environmental ethics), 땅의 윤리(land ethics), 생태계윤리(ecosystemic ethics)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생명의 신학(theology of Life)은 매우 포괄적인 것이며 다양한 것을 함축하는 신학이다. 생명의 신학은 생태계 전체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의 유지와 보전에 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다.

생태계의 위기에 맞서서 생태계의 생명을 유지·보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으로 보려는 입장이다. 오늘날에 와서 생명은 인간의 생명 뿐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까지 포괄하는 생명을 말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Ⅲ. 기독교의 생명이해

기독교의 생명이해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며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대전제에 근거한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구약 창세기에서 인간을 포함하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인간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자기와 닮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기술한다(창세기 1장 27절).

신약에서는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화육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임을 증거하고 그를 믿는 신앙으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소망을 지닌다고 한다.

기독교의 생명이해는 결국 생명의 근원, 의미, 목적을 초월적인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생명을 지닌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생명체인 샘이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므로 생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 또는 소유권보다는 생명을 보전해야 할 책임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할 자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Ⅳ. 기독교의 자연관

1. 성서는 하늘과 땅의 처음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제2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는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태론자들의 주장 : 오늘날의 생태계 위기의 상황에서 볼 때에 인간이 생육하

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결과케 하며 이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착취해도 된다는 면허장으로서 자연파괴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극도의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서 인간을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공격한다.

성서옹호론자들의 주장 : "정복하다"와 "다스리다"라는 두 낱말은 이 문맥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고 응수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활동의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하셨으며, 땅에 갖가지 식물을 나게 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하셨다.

여기서 좋았다는 선언은 단순히 심미적인 가치판단만이 아니라 존재론적·목적론적 가치판단을 포함한다. 이렇게 선하게 창조된 땅을 파괴적 폭력에 내맡긴다는 것은 창조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

참된 의미의 복은 타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다스리다"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관리한다는 것을 뜻한다.

2. 인간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다.

인간이 단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에 귀속되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특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생면의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자연을 초월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다.

Ⅴ. 결어

하나님의 인간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람과 자연 간에도 일방적인 지배관계가 아니고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공존의 관계를 이룩하는 것이다.

1. 생명중심의 윤리(life centerd ethics)에 의한 환경문제의 고찰

생명운동의 주체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포함되며, 생명운동의 방향은 생명체평등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은 정복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고 돌봄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3. 환경권의 천부적 인권성에 대한 확신이 확산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